

農民의 意識構造 變化

崔 然 宇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崔 益 秀

責任研究員, 農政輿論調查室

- I. 머리말
- II. 分析結果
- III. 맺는말

I. 머리말

待望의 80年代를 맞이했던 지난해 우리 나라는 나라 안팎으로 엄청난 시련과 변화를 겪는 나날을 보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특히 農業部門에서만 하더라도 뜻하지 않았던 여름의 異常低溫으로 水稻를 비롯한 農作物이 相當量 減收되어 가뜩이나 힘겨운 한 해 農事는 「한숨」을 거두어들이는 가을을 맞이하여야만 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韓國農村經濟研究院은 80年代 農政의 基本方向 設定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1978년과 1979년에 이어 3년째 실시하는 農民의 營農에 대

한 意識變化를 조사하였다.

- (1) 調査對象: 當研究院 現地通信員으로 위촉된 2,459명을 調査對象으로 했으며, 調査對象者의 道別 分布와 應答率은 表 1과 같다.
- (2) 調査方法: 우편조사
- (3) 調査期間: 1980년 10월 20일~10월 30일
- (4) 調査事項: 5년전과 비교한 農村生活의 向上程度, 農業에 대한 滿足度, 農村生活에 대한 앞으로의 展望, 子女에 대한 農業從事勸獎 與否와 함께 農事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의 離農 與否, 그리고 離農한다면 선택하고 싶은 職種과 그 職種에 適應할 수 있는 能力 與否에 대해 조사하였다. 農政施策에 대한 農民의 反應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난해의 農政施策에 대한 評價를 구하였고, 이와 함께 어떤 經路를 통하여 農政施策에

表 1 應答者의 道別 分布

區 分	京 畿	江 原	忠 北	忠 南	全 北	全 南	慶 北	慶 南	濟 州	計
通 信 員 數 (名)	282	154	192	303	244	425	423	341	95	2,459
應 答 者 數 (名)	233	124	156	253	216	343	364	302	87	2,078
應 答 比 率 (%)	82.6	80.5	81.3	83.5	88.5	80.7	86.1	88.6	91.6	84.5
道 別 農 家 分 布* (%)										
應 答 者 道 別 分 布 (%)	11.2	6.0	7.5	12.2	10.4	16.5	17.5	14.5	4.2	100.0

*농수산부, 「농수산통계연보」, 1980.

접하게 되는가 등을 물었다.

(5) 分析方法

① 1980년 10월 중에 回收된 2,078명을 對象으로 分析하였다.

② 應答者의 耕作規模, 學歷, 年齡 등을 독립변수로 應答者의 意思를 종속변수하여 階層間 比較 分析하였다.

③ 1978년, 1979년의 調査內容과 같은 設問에 대하여는 3年間 比較 分析하였다.

(「農村經濟」 Vol. II, No. 1 과 Vol. III No. 1 참조)

④ 자료의 처리 및 분석은 SPSS에 의하여 전산처리하였다.

(6) 應答者의 階層別 構成: 應答者를 年齡層別, 耕作規模別, 學歷別로 구분하여 보면 <表 2>, <表 3>, <表 4>와 같다.

表 2 應答者의 年齡層別 分布

區 分	20代	30代	40代	50·60代	計
應答者數(名)	174	491	1,032	381	2,078
構成比(%)	8.4	23.6	49.7	18.3	100.0

表 3 應答者의 耕作規模別 分布

區 分	0.5ha 미만	0.5~1.0ha	1.0~3.0ha	3.0ha 이상	計
應答者數(名)	227	743	808	300	2,078
構成比(%)	10.9	35.8	38.9	14.4	100.0

表 4 應答者의 學歷別 分布

區 分	國 卒	中 卒	高 卒	大 卒	計
應答者數(名)	352	789	826	111	2,078
構成比(%)	16.9	38.0	39.7	5.3	100.0

II. 分析 結果

1. 農村의 生活水準

「農村의 生活水準은 5년 전에 비하여 어떻게 변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다.

「農村生活이 5년 전에 비하여 매우 향상되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24.3%, 「약간 향상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48.4%로 農村의 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72.7%에 이르렀다.

「5년전과 比較, 별차이가 없다」가 11.0%, 「오히려 저하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16.0%로 全體의 27.0%가 農村生活에 不滿을 보이고 있고, 이 밖에 0.3%가 무응답이었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1980년의 調査結果를 1978년과 1979년의 그것과 비교하여 보면, 「農村의 生活水準이 向上되었다」고 답한 사람이 1978년의 95.6%보다는 22.9% 포인트, 1979년의 89.4%보다는 16.7% 포인트가 적고, 그중에서도 「매우 향상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1979년의 46.0%보다 21.7% 포인트, 1978년의 57.1%보다는 무려 32.8% 포인트나 적은 24.3%에 지나지 않았다.

設問의 內容이 5년 전의 生活水準과 現在의 그것을 비교토록 되어 있어, 調査年度마다 비교되는 기준년도가 每年 달라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農村生活水準이 향상되었다」는 데 대한 應答비율이 낮아지고 있다고 하여 그것이 곧 農村生活水準의 絕對的인 低下를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表 5 調査年度別 農村生活水準에 대한 反應

區 分		매우 향상	약간 향상	향상 소	同一	低下	無應答
調査年度	1978年①	57.1	38.5	95.6	2.4	1.7	0.3
	1979年②	46.0	43.4	89.4	4.5	6.1	—
	1980年③	24.3	48.4	72.7	11.0	16.0	0.3
比率增減	②—①	△11.1	4.9	△6.2	2.1	4.4	△0.3
	③—②	△21.7	5.0	△16.7	6.5	9.9	0.3
	③—①	△32.8	9.9	△22.9	8.6	14.3	0.0

나. 階層別 比較

年齡層別로는 젊은 층일수록 「農村生活이 向上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고, 5년 전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못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老年層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農村生活이 5년 전에 비하여 向上되었다」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20대가 88.5%로 가장 많았고, 이 밖에

表 6 階層別 農村生活 水準에 대한 反應

단위 : %

區 分		매우 향상	약간 향상	向上小計	同一	低下	無應答
年齡層別	20 代	40.2	48.3	88.5	6.3	5.2	—
	30 代	23.2	52.1	75.3	11.0	13.7	—
	40 代	21.7	48.4	70.1	11.4	18.0	0.5
	50・60代	25.7	43.0	68.7	11.8	18.7	0.8
耕作規模別	零細農	33.5	48.9	82.4	9.2	8.4	—
	小 農	25.0	50.7	75.7	9.3	14.4	0.6
	中 農	20.9	48.0	68.9	12.6	18.4	0.1
	大 農	24.7	43.0	67.7	12.3	19.3	0.7
平 均	24.3	48.4	72.7	11.0	16.0	0.3	

30代 75.3%, 40代 70.1%, 50・60代 68.7% 등의 순 위로 나타났다.

「農村生活이 5년 전에 비하여 오히려 못해졌다」고 답한 사람은 20대의 젊은 층에서는 5.2%에 지나지 않는 반면, 30대가 13.7%, 40대 18.0%이고, 50~60대는 18.7%나 되었다.

耕作規模別로는 耕作面積이 적은 층일수록 「農村生活이 향상되었다」고 답한 비율이 높아, 영세농은 82.4%이며, 小農 75.7%, 中農 68.9%, 大農 67.7%였다.

이러한 階層間的 應答結果는 1979년의 分析結果와 비슷한 경향으로, 이것은 大農層보다는 零細小農層의 生活水準 向上幅이 그만큼 컸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젊은 층의 農村生活에 대한 肯定的 反應은, 都市化의 影響 및 勞賃上昇 등 여러 가지 要因을 들 수 있겠으나, 營農意慾이 아직도 강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흥미를 끄는 대목이라 아니할 수 없다.

2. 農村과 都市의 生活環境에 대한 展望

「앞으로 5년 후에는 都市와 農村 중 어디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設問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都市가 農村에 비하여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24.5%였고, 「都市가 다소 좋을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62.8%로, 대부분인

87.3%가 農村보다는 都市가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都農間的 生活이 비슷하여질 것」으로 보는 사람은 7.2%에 지나지 않았고, 「農村이 오히려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는 사람은 2.7%에 불과하였다. 이 밖에 「모르겠다」고 답한 사람은 2.8%였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앞으로 農村보다는 都市가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1978년 58.1%, 1979년 85.7%와 비교, 각각 29.2% 포인트와 1.6% 포인트가 많아지고 있어, 農民의 都市生活에 대한 選好는 계속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農村이 都市보다는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이라고 답한 사람은 1978년의 18.2%에서 1979년 4.5%, 1980년 2.7%로 계속 減少하고 있다.

表 7 調査年度別 都農間 生活環境差의 展望

단위 : %

區 分		심한都市優位	약간都市優位	都市優位小計	同一	농촌優位	무응답
調査年度	1978年①	7.7	50.4	58.1	23.2	18.2	0.5
	1979年②	26.8	58.9	85.7	8.5	4.5	1.3
	1980年③	24.5	62.8	87.3	7.2	2.7	2.8
比率增減	②—①	19.1	8.5	27.6	△14.7	△13.7	0.8
	③—②	△2.3	3.9	1.6	△1.3	△1.8	1.5
	③—①	16.8	12.4	29.2	△16.0	△15.5	2.3

나. 階層別 比較

「都市가 農村에 비하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中・大農이 89.0%, 小農 86.0%, 零細農 82.9%로 큰 差異를 보이지 않고 있고, 그중 「도시가 훨씬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大農이 30.7%나 되고, 中農 28.0%, 小農 20.9%, 零細農 15.9%나 되고 있다.

반면에 「農村이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비율은 小農層에서 가장 많아 4.4%였으나, 零細農은 2.6%, 中農과 大農은 1.7%와 1.3%에 불과하였다.

또 이 設問에 대하여 答을 하지 않은 사람은 전체의

表 8 階層別 都農間 生活環境差의 展望

단위 : %

區 分		심한도시 시우위	약간도시 시우위	도시우 위小計	同一	농촌 우위	무응답
耕作規模別	零細農	15.9	67.0	82.9	12.3	2.6	2.2
	小農	20.9	65.1	86.0	7.0	4.4	2.6
	中農	28.0	61.0	89.0	5.8	1.7	3.5
	大農	30.7	58.3	89.0	7.7	1.3	2.0
平 均		24.5	62.8	87.3	7.2	2.7	2.8

2.8%인 58명으로 다른 설문에 비하여 가장 많았다.

3. 農業從事에 대한 滿足度

「農業에 從事하는 것을 어느 정도 滿足스럽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한 應答結果이다.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가 4.8%였고, 「대체로 만족스럽게 느끼고 있다」는 26.7%, 「그런대로 만족스럽다」가 31.5%였다.

「農業에 중사하는 것이 불만스럽다」가 37.5%, 「그저 그렇다」가 29.6%였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農業에 從事하는 것이 만족스럽다」는 사람의 비율은 1978년 49.2%와 비교, 17.7% 포인트가 줄어들었으나 1979년의 30.5%와는 거의 비슷한 樣相을 보여주고 있다.

農業從事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사람은 1978년의 23.5%보다는 14.0% 포인트나 많아지고 있으나 1979년의 45.7%와 비교하면 桴楨할 만한 減少率을 보이고 있다.

農業從事에 대한 만족 여부는 1979년 不滿比率이 가장 높았던 것과는 달리, 1980년에는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나. 階層別 比較

農業에 중사하고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젊은 층일수록 많아, 20代는 43.1%이며, 30代 34.6% 40代 34.2%, 50・60代 29.2%였다.

또 「그저 그렇다」고 答한 사람은 젊은 층일수록 적어 20代가 25.3%, 30代가 26.3%, 40代 30.5%이고,

表 9 調査年度別 農業從事의 滿足度

단위 : %

區 分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小計	그저 그렇다	불만	무응답
調査年度	1978年①	9.4	39.8	49.2	25.9	23.5	1.4
	1979年②	3.6	26.9	30.5	24.0	45.7	—
	1980年③	4.8	26.7	31.5	29.6	37.5	0.4
比率 增減	②—①	△5.8	△12.9	△18.7	△1.9	22.2	△1.4
	③—②	1.2	△0.2	1.0	5.6	△8.2	0.4
	③—①	△4.6	△13.1	△17.7	3.7	14.0	△1.0

表 10 階層別 農業從事의 滿足度

단위 : %

區 分		매우 만족	대체로 만족	만족 小計	그저 그렇다	불만	무응답
年齡層別	20代	9.2	33.9	43.1	25.3	31.0	0.6
	30代	4.5	30.1	34.6	26.3	38.7	0.4
	40代	4.4	24.5	34.2	30.5	40.2	0.4
	50・60代	4.5	24.7	29.2	33.6	37.0	0.3
耕作規模別	零細農	5.7	26.0	31.7	35.7	31.7	0.8
	小農	5.5	28.3	33.8	29.9	36.0	0.3
	中農	3.3	25.4	28.7	30.2	40.7	0.3
	大農	6.3	26.7	33.0	23.0	43.6	0.3
平 均		4.8	26.7	31.5	29.6	37.5	0.4

50・60代는 33.6%였다.

農業從事의 만족 여부에 대한 應答結果를 耕作規模別로 比較하여 보면, 상대적으로 生活水準이 높은 大農層일수록 不滿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의 비율이 높아 中農 40.7%, 大農 43.6%나 되는 반면, 零細農은 31.7%, 小農은 36.0%였다.

農業從事의 만족 여부에 대한 階層別 比較結果는 農村生活水準의 變化에 대한 階層別 應答結果와 같은 桴楨이며, 1979년의 同一設問에 대한 階層別 應答結果와도 같은 桴楨을 보이고 있다.

4. 農村定着 및 離農意見

「農村에서 계속 살 것인가, 離農할 것인가」를 묻는 設問의 應答결과이다.

엄격하게 따진다면 農村에 거주하면서도 非農業部門의 職業만을 가질 수도 있어 農村定着을 곧 農業從事의 계속으로 간주할 수는 없으나, 「農村을 떠나 都市로 移住할 것인가의 與否를 묻기 위한 것이다.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가 62.9%, 「農村을 떠나 都市에 가서 살고 싶되 돈을 벌면 다시 農村에 돌아 오겠다」가 21.2% 였고, 「離農하겠다」가 15.3%였다.

「도시에 나가 돈을 벌면 다시 農村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農村이 돈벌이(經濟活動)에는 부적당하나 生活(특히 老後生活) 여건은 都市보다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로서, 여기에 답한 사람(21.2%) 과 「농촌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을 합하면 84.1%나 되었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1978년 調査結果, 離農을 바라던 사람이 17.3%, 1979년에 21.0%였으나, 1980년의 調査結果에서는 2.0%와 5.7%가 각각 줄어든 15.3%에 불과했다.

이는 都市生活이 農村生活보다는 좋을 것으로는 생각하고 있으나 적당한 취업 機會가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고(뒤의 希望職業과 可能職業에 관한 分析 참조) 農村의 經濟 사정도 어렵겠지만 不況으로 인하여 都市도 就業機會가 줄어드는 등 生活與件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農民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農村에서 계속 살고 싶다」의 62.9%는 1978년의 68.6%과 비교하면 5.7%, 1979년의 64.2%보다는 1.3%가 각각 낮은 비율이었으나, 「농촌을 떠나 도시로 移住, 돈을 벌면 다시 농촌에 돌아와 살고 싶다」의 21.2%는 1978년 11.4%, 1979년 11.5%와 비교, 2배에 가까운 增加率을 보이고 있다.

나. 階層別 比較

「農村을 떠나고 싶다」는 傾向은 젊은 층일수록 강하여 20代와 30代가 각각 17.8%와 17.9%였고, 40代가 15.7%, 50~60代는 9.4%였다.

이는 젊은 층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營農意慾도 감소한 반면 離農의 경우에도 非農業分野의 就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따라서 離農의 誘惑도 그만큼 감소된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都市에서 돈을 벌면 다시 農村에 돌아와 살고 싶다」의 경우 20代가 12.6%, 30代 19.3%, 40代 23.7%,

表 11 調査年度別 農村定着 및 離農意思

단위: %

區 分		農村定着	離農後 歸農	小 計	離 農	無應答
調査年度	1978년①	68.6	11.4	80.0	17.3	2.7
	1979년②	64.2	11.5	75.7	21.0	3.3
	1980년③	62.9	21.2	84.1	15.3	0.6
比率 増減	②-①	△4.4	0.1	△4.3	3.7	0.6
	③-②	△1.3	9.7	8.4	△5.7	2.7
	③-①	△5.7	9.8	4.1	△2.0	△2.1

表 12 階層別 農村定着 및 離農意思

단위: %

區 分		農村定着	離農後 歸農	小 計	離 農	無應答
年齡 層別	20 代	69.0	12.6	81.6	17.8	0.6
	30 代	61.9	19.3	81.2	17.9	0.8
	40 代	59.9	23.7	83.6	15.7	0.7
	50·60代	69.8	20.7	90.5	9.4	—
	平 均	62.9	21.2	84.1	15.3	0.6

50·60代 20.7%로 40代가 가장 높은 比率을 차지하고 있다.

5. 農業從事 満足度와 農村定着意思

農業從事の 満足與否와 定着 및 離農意思를 비교하였다.

現在 農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 99.0%가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거나 「離農을 하여도 다시 農村으로 돌아오겠다」는 意思를 나타내고 있고, 이와 같은 性向은 「農業從事に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도 같아, 그 比率은 93.9%나 되었다.

또 「현재 農業從事に 대하여 약간 불만」인 경우 「農村에 계속 定着하겠다」는 사람은 51.6%나 되었고, 「매우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람 중에서도 그 比率은 25.8%나 되었다.

農業從事に 심한 不滿을 나타내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農村에 계속 정착하겠다」는 사람과 「離農을 하여도 다시 農村에 돌아와서 살고 싶다」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절반이 넘는 51.5%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1979년의 67.2%보다는 크게 줄어든 것이다.

表 13 農業従事 満足度와 農村定着意思

단위 : %

區 分	農 村 定 着 意 思					
	農村定着	離農後 歸農	小 計	離 農	無 應 答	
農業 従事 의 滿 足 度	매우 만족	94.0	5.0	99.0	1.0	—
	대체로 만족	86.1	7.8	93.9	6.0	0.1
	그저그렇다	59.4	18.3	77.7	21.3	1.0
	약간 불만	51.6	17.5	69.1	30.3	0.6
	매우 불만	25.8	25.3	51.1	48.4	0.5
평 均	62.9	21.2	84.1	15.3	0.6	

農業従事の 満足 與否別로 離農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매우 만족스럽다」 가운데 1.0%, 「대체로 만족한다」 가운데 6.0%, 「그저그렇다」 가운데 21.3%를 차지하고 있고, 「약간 불만스럽다」 가운데 30.3%, 「매우 불만스럽다」 가운데에서는 48.4%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업에 종사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農村에 계속 살겠다고 한 比率이 높은 것은 非農業分野에 従事할 수 있는 能力이나 자신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6. 子女에게 農業을 勸奨할 意思

「子女에게도 農業을 勸奨할 것인가」에 대한 應答結果다.

「子女의 意思에 따라 결정하겠다」가 63.3%나 되었고, 「農業 이외의 職業을 택하도록 권장하겠다」가 30.6%였다.

「子女에게 農業에 従事하도록 권장하고 전적으로 支援하여 주겠다」는 사람은 5.7%에 불과하였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고 영농중사에 필요한 지원을 하겠다」는 사람의 비율은 1978년의 6.1%보다는 0.4%가 낮으나 1979년의 3.7%보다는 2.0%나 높다.

「子女의 職業선택은 子女의 意思를 따르겠다고」고 應答한 比率은 1978년 71.2%, 1979년 64.8%, 1980년 63.3%로 매년 감소되고 있고 있는 반면, 「농업 이외의 職業을 택하도록 권장하겠다」고 답한 사람은 점점 늘어

表 14 調査年度別 子女에게 農業勸奨意思

단위 : %

區 分	農業勸奨	子女意思	他職業勸奨	無 應 答	
調査年度	1978年①	6.1	71.2	21.0	1.7
	1979年②	3.7	64.8	30.4	1.1
	1980年③	5.7	63.3	30.6	0.4
比率 増減	②—①	△2.4	△6.4	9.4	△0.6
	③—②	2.0	△1.5	0.2	△0.7
	③—①	△0.4	△7.9	9.6	△1.3

1978년 21.0%에서 1979년 30.4%, 1980년 30.6%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階層別 比較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는 比率은 젊은 층일수록 낮아서 20代 40%, 30代 4.1%, 40代 55%, 50·60代는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學歷이 낮은 層일수록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는 比率이 높았는데, 國卒 8.2%, 中卒 6.3%, 高卒 4.6%, 大卒 1.8%였다.

表 15 階層別 子女에게 農業勸奨意思

단위 : %

區 分	農業勸奨	子女意思 대	他職業勸奨	無 應 答	
年齡 層別	20 代	4.0	73.0	19.5	3.4
	30 代	4.1	66.6	29.1	0.2
	40 代	5.5	60.9	33.5	0.1
	50·60代	9.2	61.2	29.4	0.3
學歷 別	國 卒	8.2	59.7	31.5	0.6
	中 卒	6.3	61.9	31.6	0.3
	高 卒	4.6	5.96	28.9	0.6
	大 卒	1.8	65.8	32.4	—
平 均	5.7	63.3	30.6	0.4	

「子女의 意思를 따르겠다」의 경우 學歷이 높을수록 또 젊은 사람일수록 그렇게 하겠다는 比率이 높았다.

20代의 應答자 중 子女의 職業선택에 관한 設問에서 무응답자가 3.4%로 높게 나타난 것은 아직 미혼이거나 자녀가 있어도 자녀의 職業선택 문제는 아직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7. 農業 이외의 希望職業과 可能職業

「農業을 그만두고 都市로 移住한다면 어떤 職業을

갖고 싶은가)와 자신에게 能力이 있다면 그것은 어떤 分野일 것으로 생각하는가)를 묻은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이다.

「農業 이외의 職業을 택하고 싶지 않다」고 답한 사람은 27.1%에 이르고 있고, 「非農業分野에 종사할 능력이나 여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답한 사람도 37.9%나 되었다.

그러나 非農業部門의 職業을 갖기를 원하는 사람 가운데 希望職種은 商業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行商·구멍가게·식품 판매소·농산물 中介商·슈퍼마켓 등으로 다양하고, 특히 식품이나, 농산물을 취급하고 싶다는 사람이 많아 전체 응답자의 36.6%나 차지하고 있다.

다음은 事務職으로 14.0%였고, 이 밖에 공장직공·목수·벽돌공 등 勤勞職, 그리고, 자동차 정비 기술직도 12.2%에 이르고 있으며, 이밖에 개인기업·여관·다방 등 서비스分野나 小規模 個人事業을 원하는 경우도 8.1%나 되었다.

가. 調査年度別 希望職業의 比較

商業은 1979년의 34.1%보다 2.5%가 증가하고 있고, 1979년 13.8%였던 기술직은 12.2%로 1.6%가 낮아졌으며, 事務職은 1979년의 12.9%와 거의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의 경우 1979년 4.9%에서 3.2%가 증가하여 8.1%에 이르렀다.

表 16 調査年度別 農業外 希望職業 單位: %

區 分	상업	사무원	기술자	사업	노동	없음
調査年度 1979年①	34.1	12.9	13.8	4.9	2.0	32.3
1980年②	36.6	14.0	12.2	8.1	2.0	27.1
②-①	2.5	1.1	41.6	3.2	-	△5.2

한편 「農業 이외의 다른 職業을 바라지 않는다」고 답한 사람은 1979년의 32.3%보다 5.2%포인트가 줄은 27.1%에 머물렀다.

나. 希望職業과 可能職業

「農村에서 都市로 移住했을 때의 希望職種과 자신의 능력이나 여건에 비추어 選擇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表 17 農業外的 希望職業과 可能職業 單位: %

區 分	상업	사무원	기술자	사업	노동	없음
希望職業 ①	36.6	14.0	12.2	8.1	2.0	27.1
可能職業 ②	25.1	11.2	12.8	4.4	8.6	37.9
②-①	△11.5	△2.8	0.6	△3.7	6.6	10.8

職業을 比較하여 보면 <表 17>과 같다.

自己資本을 필요로 하는 商業은 희망자가 36.6%이나, 실제 가능하다고 답한 사람은 이 보다 훨씬 낮은 25.1%였고, 個人事業의 경우에도 希望者는 8.1%였으나, 4.4%만이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했다.

個人的 능력에 따라 취업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는 事務職은 14.0%의 希望에 「實現可能性」은 11.2%였고, 특별한 능력이 없어도 기술을 배워가며 일할 수 있는 技能職은 「희망」 12.2%에 「實現可能性」은 오히려 이 보다 많은 12.8%에 이르고 있으며, 노동도 2.0% 「희망」에 「實現可能性」은 8.6%였다.

8. 農政施策 傳達手段으로서의 媒體

「農政施策을 어떻게 알게 되는가」를 묻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전체 응답자의 90.3%가 「매스컴을 통하여 알고 있다」고 하고 있다. 매스컴 가운데서도 텔레비전이 가장 높은 比率를 차지하여 42.3%에 이르고 있고 신문 31.5%, 라디오 16.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邑面職員, 農村指導所職員, 農協職員 등 一線 公職者를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는 6.5%에 지나지 않고, 部落內的 指導者, 里長, 이웃 사람, 部落內 放送 등을 통한 경우도 3.0%에 지나지 않는 등 매스컴 특히 電波媒體의 重要性이 端的으로 立證되고 있다.

가. 調査年度別 比較

農政施策의 內容을 매스컴을 통하여 알게 되는 경우는 1979년의 81.5%보다 8.8%가 증가 되었다. 이 중 텔레비전은 1979년의 26.4%에서 42.3%로 急速한 增加率을 보인 반면, 신문과 라디오는 각각 4.7%와 2.4%

表 18 調査年度別 農政施策 弘報媒體 單位：%

區分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매스콤계	일선공직자	이장및자부락민	무응답
調査年度 1979年①	26.4	36.2	18.9	81.5	16.5	2.0	—
1980年②	42.3	31.5	16.5	90.3	6.5	3.0	0.2
比率増減②-①	1.9	△4.7	△2.4	8.8	△10.0	1.0	0.2

가 줄어들었다.

또 일선 공직자를 통하여 農政施策을 알게 되는 경우 역시 1979년 16.5%에서 무려 10.0%나 줄어든 6.5%에 불과하다.

이 결과로 볼 때 농정시책과 관련된 홍보는, 매스콤이 거의 絶對的인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서도 텔레비전의 役割은 農政當局者들의 깊은 認識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強調되고 있다.

나. 階層別 比較

農政施策의 弘報와 관련된 응답결과를 응답자의 學歷別로 구분하여 보면, 「일선 공직자를 통하여 農政施策을 알게 된다」는 경우는 학력이 낮을수록 많아, 國卒이 9.9%, 中卒 6.7%, 高卒 5.1%이며, 大卒은 4.5%였다.

그러나 「매스콤을 통하여 農政施策을 알게 된다」고 답한 사람은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 大卒이 93.6%, 高卒 92.8%, 中卒 88.8%, 國卒 86.7%였다.

매스콤의 종류는 低學歷일수록 라디오와 텔레비전

表 19 階層別 農政施策弘報媒體 單位：%

區分	텔레비전	신문	라디오	매스콤계	일선공직자	이장및자부락민	무응답
學歷別	國卒	43.8	21.6	21.3	86.7	9.9	3.1
	中卒	44.1	28.1	16.6	88.8	6.7	4.2
	高卒	40.6	37.2	15.0	92.8	5.1	2.0
	大卒	36.9	45.0	11.7	93.6	4.5	1.8
平均	42.3	31.5	16.5	90.3	6.5	3.0	0.2

에 依存하는 比率이 높고, 高學歷일수록 신문을 利用하는 사람이 많았다.

9. 過去 農政에 對한 評價

「지난날의 農政施策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過去の 農政施策은 대체로 잘되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31.1%였고, 「그저 그렇다」가 27.2%, 「잘못된 점이 많다」고 한 경우는 41.2%, 무응답(모르겠다 포함)은 0.5%에 지나지 않아, 農政施策에 대해 農民들은 대부분 積極的인 關心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設問은 1980년에 처음 조사된 것으로 年度別 비교는 할 수 없으나, 農民은 자신의 利害와 密接한 關係를 갖고 있는 農政施策에 지대한 關心을 갖고 있고 이에 대하여 부단히 評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 階層別 比較

과거 農政施策에 대한 응답결과를 응답자의 耕作規模別로 비교하여 보면 耕作面積이 작은 사람일수록 과거의 農政에 肯定的인 評價를 내리고 있는데, 그 比率은 零細農 42.3%, 小農 33.6%, 中農 27.3%, 大農 26.8%로 나타났다.

그러나 「과거의 農政이 잘못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零細農 32.6%, 小農 39.2%, 中農과 大農은 각각 42.5%와 48.2%의 순이었다.

表 20 階層別 過去農政의 評價

區分	잘되었다	그저 그렇다	잘못되었다	무응답	
耕作規模別	零細農	42.3	25.1	32.6	—
	小農	33.6	26.8	39.2	0.4
	中農	27.8	29.6	4.5	0.6
	大農	26.8	23.3	48.2	0.7
學歷別	國卒	38.9	26.4	34.1	0.6
	中卒	31.4	28.8	38.4	0.5
	高卒	28.1	26.3	45.2	0.4
	大卒	18.9	25.2	55.8	—
平均	31.1	27.2	41.2	0.5	

이 설문에 대한 응답결과를 學歷別로 보면 「과거의 農政이 잘되었다」고 답한 사람의 比率은 학력이 낮을수록 높아져, 國卒은 38.9%, 中卒 31.4%, 高卒 28.1%이고 大卒은 18.9%에 불과했으며, 반대로 「과거의 農政이 잘못되었다」고 답한 사람은 大卒者 중 55.8%나 되었고, 이밖에 高卒者 중 45.2%, 中卒者 중 38.4%,

國卒者 중 34.1%도 같은 反應을 보이고 있다.

10. 農村靑少年의 評價

「요즈음 農村의 靑少年들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設問內容을 구체적인 事例가 아닌 「健全하다고 본다」, 「그저 그렇다」, 「不健全하다고 본다」 등으로 구분, 응답자가 젊은 층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느끼고 있는 생각을 包括적으로 應答하도록 하였는데, 응답자와 가까운 젊은이(자녀나 친척, 이웃 젊은이 등)가 評價對象이 되었을 可能性이 크다.

「農村의 靑少年들을 健全하다」고 한 경우가 42.6%, 「불健全하다」가 34.5%, 「그저 그렇다」가 22.1%이었고, 「모르겠다」와 무응답은 0.9%에 지나지 않았다.

응답결과를 응답자의 年齡層別로 구분, 比較하여 보면 젊은 층일수록 農村의 靑少年이 「健全하다」는 反應을 보이고 있고, 「불健全하다」는 比率은 낮았다.

「健全하다」고 答한 사람의 비율을 보면 20代가 56.9%, 30代 46.3%, 40代 40.3%, 50・60代 37.8%였고, 「불健全하다」고 答한 사람은 30代, 40代, 50・60代가 각각 33.8%, 35.6%, 39.1%였으나, 20代는 19.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당사자인 20代는 자신들을 否定的이기보다 肯定的으로 評價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耕作規模別로는 耕作面積이 적은 층일수록 「健全하다」고 答한 사람이 많고, 「그저 그렇다」고 答한 경우도 높은 比率을 보였다.

한편 「불健全하다」고 答한 사람은 零細農이 26.4%, 小農 34.2%, 中農 46.3%, 大農 38.0%였다.

Ⅲ. 맺는 말

農民의 意識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으며 階層間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比較하기 위하여 設問內容 중 農業 및 農村의 밝은 면, 긍정적인 면에 答한 비율만을 比較하여 보면 <表 22, 24, 23>와 같다.

表 21 階層別 農村靑少年에 대한 評價

區 分		健全하다	그저 그렇다	불健全하다	무응답
年齡層別	20代	56.9	22.4	19.0	1.7
	30代	46.3	20.0	33.8	—
	40代	40.3	22.9	35.6	1.3
	50・60代	37.8	22.6	39.1	0.6
耕作規模別	零細農	45.3	27.3	26.4	0.8
	小農	43.0	22.7	34.2	—
	中農	42.0	20.0	36.6	1.8
	大農	41.3	20.0	38.0	0.9
平均		42.6	22.1	34.5	

1. 年度別 意識變化

「現在의 農村生活水準이 5년 전에 비하여 向上되었다」고 答한 比率은 급격히 낮아지고 있으나,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와 「農村이 都市보다 살기 좋은 곳일 것」이라고 答한 比率은 1978년과 1979년의 差異에 비하여 1980년에 差異가 적었고, 「農業에 從事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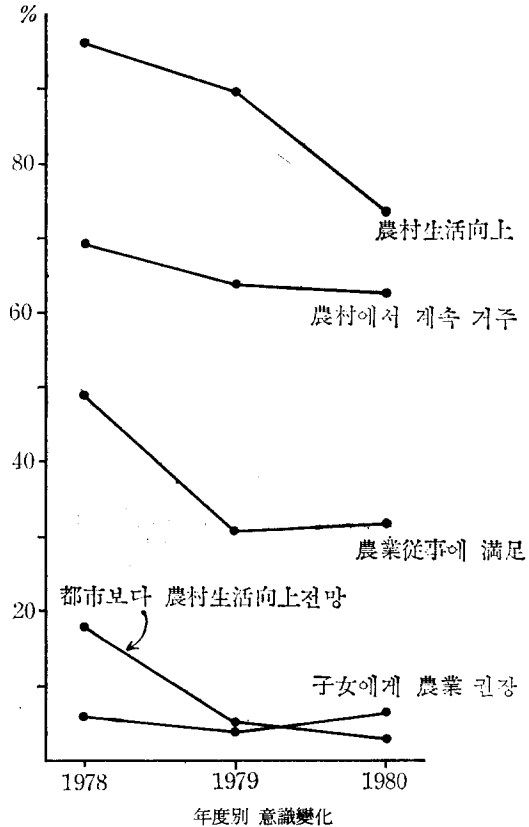


表 22 調査年度別 農村의 밝은 면에 答한 比率

단위 : %

區 分	調 査 年 度 別			應答比率의 增減		
	1978	1979	1980	79—78	80—79	80—78
農村生活水準은 5年前에 比하여 向上되었다	95.6	89.4	72.7	△ 6.2	△ 16.7	△ 22.9
5年後의 農村은 都市보다 살기 좋게 될 것이다	18.2	4.5	2.7	△ 13.7	△ 1.8	△ 15.5
農業에 從事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9.2	30.5	31.5	△ 18.7	1.0	△ 17.7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	68.6	64.2	62.9	△ 4.4	△ 1.3	△ 5.7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	6.1	8.7	5.7	△ 2.4	2.0	△ 0.4

表 23 年度別 意識變化 年齡層別 農村의 밝은 면에 答한 比率

단위 : %

區 分	20 代	30 代	40 代	50・60代
農村生活水準은 5年前에 比하여 向上되었다	88.5	75.3	70.1	68.7
農業에 從事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43.1	34.6	34.2	29.2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	69.0	61.9	59.9	69.8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	4.0	4.1	5.5	9.2
農村의 젊은이들은 健全하다.	56.9	46.3	40.3	37.8

表 24 耕作規模別 農村의 밝은 면에 答한 比率

區 分	零 細 農	小 農	中 農	大 農
農村生活水準은 5年前에 比하여 向上되었다	82.4	75.7	68.9	67.7
5年後 農村生活은 都市보다 살기 좋게 될 것이다	2.6	4.4	1.7	1.3
農業에 從事하는 것을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31.7	33.8	28.7	33.0
農村의 젊은이들은 健全하다	45.3	43.0	42.0	41.3
과거의 農政은 잘되었다고 생각한다	45.3	43.0	42.0	41.3

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는 사람과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는 사람의 比率은 1980년의 調査結果가 1978년의 水準에는 미치지 못하나, 1979년 보다는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2. 階層別 意識比較

農村生活이나 農業從事に 만족하고 있는 사람의 比率은 일반적으로 生活形便이 좋으리라고 생각되는 中

・大農이 零細小農보다도 낮고, 年齡別로는 老年層이 젊은 층에 比하여 높은 比率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子女에게 農業을 권장하겠다」고 答한 比率은 老年層이 높았으며, 「農村에서 계속 살겠다」고 答한 사람은 都市에 나가도 生活基盤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는 20代와 50・60代에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